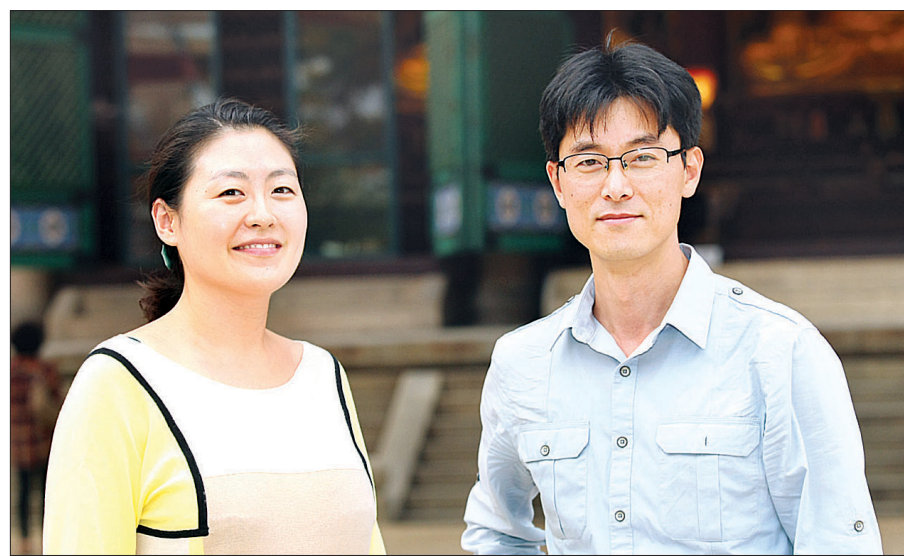


“우리는 찬불가 알리는 명콤비 불교음악 세계화 꿈꿔요”

‘무소의 뿔’ 무료 공연 여는 작곡가 이진구·성악가 유현주

15년전 어느날이었다. LMB싱어즈 공연을 찾았던 작곡가 이진구(47·진구리 밴드 마스터) 씨의 귀에 성악가 유현주 씨(39)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늘 찬불가를 세계화·대중화시키고 싶다고 발원하던 이 씨는 자신이 작곡한 ‘작은 마음의 노래’를 유 씨가 불러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찬불가를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그 마음이 같음을 알았고, 작곡가와 성악가는 콤비가 되었다. 함께 순회공연을 다니는 등 호흡을 맞췄던 둘은 큰 성과를 낳았다. 2005 창작 찬불가 공모전에서 ‘내 마음의 부처’로 대상을 수상했고, 대만에서 열린 ‘제4회 세계 창작 찬불가대회’에서 ‘자유·평화·행복’으로 대상을 받는 등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찬불가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발원한 작곡가 이진구(사진 오른쪽)·성악가 유현주 씨. 이 씨가 작곡한 곡을 유 씨가 부르며 세계 창작찬불가 대회 대상, 창작 찬불가 공모전 대상 등을 수상하며 둘은 15년 간 명콤비로 활약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hillo@hyunbul.com

그렇다면 이진구 씨는 왜 찬불가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꿈꾸게 된 것일까? “음악을 하는 불자로서 찬불가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에 자연스럽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가 타종교에 비해 불교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불자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기회도 없으니 이런

법회를 다니면서 불교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고 찬불가를 부르며 음악가의 꿈을 키운 제가 불교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산사의 새벽종소리’는 우리 고유의 법배를 현대화해 대중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 너무나 뜻 깊은 곡이 될 거 같습니다.”

‘무소의 뿔’ 공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진구 씨는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며 진구리 밴드를 결성해 무대를 펼쳐왔다. 그는 지난해 미국의 원각사와 불광선원 등에서 ‘무소의 뿔’이라는 이름으로 첫 공연을 가진 바 있다. 또한 이번 공연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 씨는 11월 2일 미국 뉴욕 원각사에서 법배 등을 기반으로 한 뮤지컬 ‘깨달은 자, 신타르타’ 공연의 쇼케이스도 가질 예정이다.

작곡가와 성악가로 만나

15년간 찬불가 대중화 매진

불교음악의 현대화 시도하는

9월 26일 찬불 공연 기획

난관을 극복해보자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무소의 뿔 공연은 저의 오랜 고민들이 낳은 결과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의 백미는 법배를 현대화한 ‘산사의 새벽종소리’로 정목 스님(조계사 기도법사)과 유현주 씨가 듀엣으로 공연해 눈길을 끈다. 유 씨는 이번 공연이 찬불가의 새로운 시도이며 전통과 현대의 새로운 만남이라고 강조한다. “어렸을 적부터 어린이

“무소의 뿔은 공연 이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무소의 뿔’이라는 팀을 이루어 매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공연을 가질 계획입니다. 뮤지컬 ‘깨달은 자, 신타르타’ 또한 미국에서 올해 쇼케이스를 갖고 내년 한국에서 공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진구 씨가 활동하고 있는 진구리 밴드는 지난해 뉴욕 원각사에서 ‘무소의 뿔’ 공연을 가진 바 있다. 앞으로 이 씨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찬불공연, 뮤지컬 등의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날마다 만 번 씩 염불해 만일에 이르면...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㉞ 건봉사 ㉞



한국 전쟁 때 건봉사는 대부분 폐허가 되었지만 불이만은 유일하게 화를 면했다.

허균이 건봉사에서 지은 시에서 시적 반전이자 허균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하는 대목은 “어찌 마음 씻고 참선 배워 인간의 노병사를 마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다. 허망한 명리를 따라 다니지 말고 불성을 찾아 자유로운 길을 가라는 건봉사 스님의 충고를 듣는 대목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시의 전개를 보면 허균은 스님의 충고를 슬쩍 비껴간다. 그는 조선 전기의 경치된 도학주의 문학에서 보다 개성적이고 자유분방한 문학을 지향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에게 건봉사는 공간은 ‘인격의 완성’이라 할 성불을 추구하는 공간이기보다는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내일이면 떠나야 할 현실을 들춰냈다. 그 시의 말미는 다음과 같다.

초창산문역이별(招 山門亦離別) 명조불사척공장(明朝拂曙耀笏杖) 하인경방원통경(何人更訪圓通境) 은해연공월일련(銀海連空月一片)

서글퍼라 산문에서도 이별해야 하니 내일 아침 새벽을 떨치고 지팡이를 들어야 하리. 누가 다시 원통의 지역을 찾으라 하늘에 있달은 은빛 바다에 한 조각달이 떠있네.

역사속의 절, 오늘의 깨침

오랜 역사를 간직한 건봉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이고 깨달음의 공간이다. 건봉사에서 선비들이 시심을 열고 느끼는 것이 바로 역사속의 건봉사이고 건봉사 속의 깨달음인 것이다. 간성 현감으로 좌천되어 왔던 태담 이식 역시 누구보다 건봉사를 자주 찾았고 거기서 마음을 다스렸다.

봉석총림구(鳳石叢林舊) 봉방경화여(蜂房劫火餘) 삼년동군거(三年東郡吏) 일탑반승거(一榻半僧居) 설창초분간(雪漲初分澗) 송량정만주(松涼正滿廚) 귀관호계반(歸 虎溪源畔) 위이강주저(爲爾更躊躇)

총림의 옛터 건봉사 바윗돌 병화를 이겨낸 벌집 같은 승방 동쪽 벼슬 생활 3년에 반은 승려인 듯 한자리 얻어 살았네. 눈 녹아 산골 물 불어나기 시작하고 서늘한 숲 기운 공양간에 가득한데 조랑말 타고 호계를 건너려 하다 그대로 인해 다시 주저 되느니라.

시의 내용으로 보아 이식은 간성에 현

감으로 있는 동안 건봉사를 자주 찾았다. 그래서 ‘반은 승려인 듯’ 하다고 술회할 정도다. 그러므로 건봉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스스로 지방관리 생활에서 오는 객고를 절의 풍경 속에서 풀었을 것이다. 이식은 시의 전반부에 건봉사의 역사성을 드러내며 거기에 자신의 역사를 오버랩 시켰다. 자신은 간성 현감으로 삼년을 지내면서 반은 승려인 듯 절에서 방 한 칸 얻어 자주 찾아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역사인 것이다.

시의 후반부는 눈이 녹아 산골 물이 불어나는 모습과 공양 간에 서늘한 숲 기운이 가득하다는 설명으로 시작되는데, 계절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계절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처지가 변하여 이제 지방관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다음에 이어지는 호계는 중국 여산 동림사에 있는 계곡의 이름이다. 여산은 장시성(江西省) 구강시(九江市)에 남쪽에 있다. 1996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등재한 명소다. 여산에 동림사가 있는데 해원(334~416) 스님이 서기 386년경에 창건했다. 해원 스님은 30년 이상을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수행에 몰두 했다. 손님을 배웅할 때도 절 앞의 호계라는 계곡을 건너지 않았다. 그래서 여산의 호계는 수행에 몰두하는 수행자와 세속과의 경계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염불소리 가득한 도량

건봉사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는 신라 때부터 이어져 오는 만일염불결사다. 19세기를 대표하는 고문(古文)의 한 사람인 홍길주(洪吉周 1786~1841)는 금강산 유람길에 건봉사에 들러 놀랄만한 장면을

목격했다. 만일염불회다. 그가 건봉사에 들린 것은 1811년 전후로 1802년에 결성된 만일염불회가 이어지고 있던 때였다. 유학자로서의 깊은 지식을 갖춘 선비 홍길주는 건봉사 만일염불 결사를 보고 감동을 받지만, 동참 승려가 30여명에서 절반으로 줄어 든 현실을 비꼬기도 하고 불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물론 선비의 자세를 철저히 지키면서, 그의 문집 <현수갑고(峴首甲藪)> 하권에 ‘건봉사만일염불회’라는 시가 있다.

일일나무아미불(一日南無阿彌佛) 이일나무아미불(二日南無阿彌佛) 일일만년도만일(日日萬念到萬日) 변화역신개응출(變化億身皆應出) 삼천삼백일미만(三千三百日未滿) 삼십승여십육칠(三十餘僧十六七) 백발체단견가사(白髮剃短肩袈裟) 당중경고성부절(堂中鐘磬鼓聲不絕) 이심무불념무의(爾心無佛念無益) 이심유불념길(爾心有佛不念吉) 아유일부논어서(我有一部論語書) 육독삼만육천일(欲讀三萬六千日)

첫째 날도 나무아미타불 둘째 날도 나무아미타불 날마다 만 번 씩 염불하면 만일에 이르러면 억의 화신이 응하여 나타난다네. 삼천삼백일도 차지 않았건만 서른 명 승려 중 남은 이는 열에닐곱 짝게 작은 백발에 어깨에 걸친 가사 종치고 북치는 소리 끊이지 않네. 마음속에 부처 없으면 염불해도 득이 없고 마음속에 부처 있으면 염불하지 않아도 길하네. 나에게 한 절의 논어가 있으니 삼만 육천일 동안 읽으리라.

붓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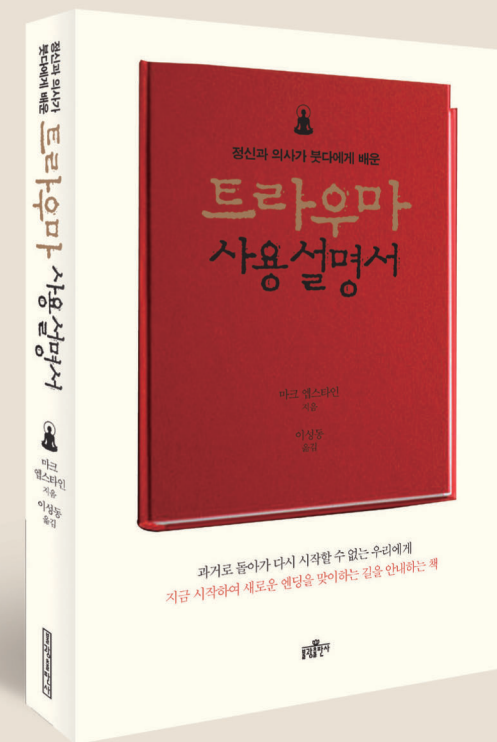
The Trauma of Everyday Life

태어난 지 7일 만에 엄마를 잃은 아기 붓다의 가슴에 새겨진 트라우마 붓다의 구도 여정은 트라우마를 넘어 정신의 완성을 이뤘던 과정이었다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지금 시작하여 새로운 엔딩을 맞이하는 길을 안내하는 책

정신과 의사가 붓다에게 배운

트라우마 사용설명서



“일찍 어머니를 여읜 부처님의 아들이 트라우마와, 완전한 지혜와 자비에 이르는 영적 성장의 과정을 연결시키는 저자의 시각이 인상적이다. 40년 가까이 불교와 정신치료의 통찰에 앞장서온 저자는 불교의 핵심 교리와 정신치료의 전문적 내용을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풍부한 사례를 들며 현대인의 눈높이와 필요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이 불교와 명상, 심리치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서평 스님 (한국평상심리상담연구원장, '자유하는 유식 읽기', '자유하는 불교 읽기' 저자)

bulkwang.com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마크 엠스타인 지음 이상동 옮김 18,000원

인간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남산율종의 11대 조사 홍일 대사의 사유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람다움'을 떠올려본다



그저 인간이 되고 싶었다

마음 없는 시대에 참사람이 되고자 한 홍일 대사의 사유록

세월을 수행으로 생각했던 고승들의 뜻깊은 수행을 만나



근대 중국의 고승

전통적인 사회문화의 장이었던 선종과 선종이 근대 사회에서 활약한 고승 19명의 생애와 사상

정일전쟁, 신해혁명, 중일전쟁, 국공내전, 공산화 등 급변하는 중국 근대를 살다간 고승 19명의 삶과 수행

김영진 지음 | 18,000원